

#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3학년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기질과 애착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질척도와 애착척도, 형제자매관계 척도 및 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이 높을 때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의 갈등이 커지고 활동성과 사교성이 높을 때 두가지 관계는 더 온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더 온정적이고 갈등은 적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에 대한 낮은 애착은 더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는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긍정적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형제자매관계는 기질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친구관계는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기질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기질, 애착,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통하여 상호적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청년기 동안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친밀성과 정서적

지원의 근원으로 이 시기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Updegraff & Obeidallah,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하였으므로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가 적을 뿐 아니라 친구관계를 연구할 때

---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도 부모-자녀관계와의 관련성을 기초로 연구되었으므로(Parke & Buriel, 1998),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에 제한되고 있다(McCoy, Brody, & Stoneman, 1994; Updegraff, McHale, & Crouter, 2002).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차적 관계맥락으로서 전자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성되는 관계인 반면, 후자는 개인이 선택한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관계맥락은 온정과 갈등을 포함하는 유사성을 지닌다. 그 결과 어떤 형제자매들은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며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갈등적, 적대적, 공격적인 부정적 관계를 형성한다(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친구관계도 유사하게 어떤 친구관계는 친밀성이나 신뢰 혹은 충성심과 같은 긍정적 속성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반면, 또 다른 친구관계는 경쟁이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 속성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Hartup, 1996).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기질이 논의된다. Prior(1992)는 기질을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양식으로 정의하였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기질을 구성하는 기본 경향성들은 인생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시간경과와 함께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지므로 기질이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Gunnar & Nelson, 1994; Goldsmith & Campos, 1990).

일찍이 EAS 모형을 제안한 Buss와 Plomin(1984)은 기질을 사교성, 정서성, 활동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사교성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로서 사교적인 아동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설명된다. 또한 정서성은 정서적 반응의 강도로

서 그리고 활동성은 일상생활의 속도와 강도로 설명되므로, 높은 정서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은 잘 울고 잘 놀라며 쉽게 잠에서 깨어나는 특성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활동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며 과격하고 자주 격렬한 행동을 한다(장휘숙, 2001).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은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Rubin, Bukowski, & Parker, 1998), 개인의 기질적 특성은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동성의 초등학교 형제자매 40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Brody와 Stoneman 및 Burke(1987)는 지극히 활동적이고 정서성이 높으며 지속성이 낮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형제자매들에게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ocker와 Dunn 및 Plomin(1989)은 손위 형제자매들의 수줍음은 덜 통제적이고 덜 경쟁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연합되어 있고, 손아래 형제자매들이 갖는 높은 수준의 활동성은 부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박혜원, 김은지, 1997)에서도 활동성과 사회성은 형제관계의 긍정적 차원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부정적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정서성과 충동성은 형제관계의 긍정적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부정적 차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친구관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기질은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는 물론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형제자매관계와 비교하여 기질과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적기는 하지만, Stocker와 Dunn(1990)은 아동중기 동안 사교적인 아동들이 친구와 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서도 사교적이라는 평가를 받

고 친구에게 더 적은 적대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한 12-15세 청소년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ike와 Atzaba-Poria(2003)는 정서성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양자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고 사교성과 활동성은 두가지 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다고 밝혀 기질적 특성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강한 정서성을 지닌 소위 까다로운 기질은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나 또래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착 또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Bowlby(1973)의 주장대로, 영아기에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전생애 동안 계속되며, 그것은 이후 애착체계의 활성화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장휘숙, 1997; Bowlby, 1973; Hazan & Shaver, 1987; 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여기서 내적 작동모델이란 양육자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을 기초로 형성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영아는 자신이 형성한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은 개인의 관계형성 방식에 영향을 주므로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적대적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Boer, 1990; Brody, Stoneman & McCoy, 1992)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부모와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는 다시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친구로부터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아

동들은 형제자매관계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역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East & Rook, 1992; Stocker & Dunn, 1990). 그러나 많은 연구들(장휘숙, 2007; Kramer & Gottman, 1992; McCoy, Brody & Stoneman, 1994; Updegraff & Obeidallah, 1999; Volling, Youngblade, & Belsky, 1997)은 부모로부터 학습한 상호작용 양식과 사회적 기술은 형제자매관계는 물론 가정 바깥의 친구관계에도 일반화되기 때문에, 3자는 이월관계로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는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긍정적 형제자매관계 또한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지만, 부정적 부모-자녀관계는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3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기질과 애착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두 개의 관계에 미치는 기질과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중기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개인차가 뚜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그리고 청년초기는 정체감 형성의 일환으로 부모보다는 친구나 동년배 집단의 가치에 일치하려고 하므로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기질과 애착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가?

## 방 법

### 연구대상자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3학년 남녀 청소년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형제자매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 및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초등학교 남자 아동 173명, 여자 아동 174명, 중학교 남자 청소년 196명 그리고 여자 청소년 200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초등학교 남자 아동 11.90( $SD=.384$ )세, 여자 아동 11.90( $SD=.383$ )세, 중학교 남자 청소년 14.82( $SD=.482$ )세 그리고 중학교 여자 청소년 14.86( $SD=.458$ )세였다. 질문지는 수업시간을 통해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고 질문실시를 위해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는 2007년 5월 첫 주부터 약 2주에 걸쳐 수집되었다.

### 측정도구

#### 기질척도

아동과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EAS)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원래 아동의 기질에 대한 부모평정척도이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이 직접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그리고 사교성(Sociability)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정서성 5문항(문항 예: 나는 잘 우는 편이다), 활동성 5문항(문항 예: 나는 쉴새없이 움직이는 편이다) 그리고 사교성 10문항(문항 예: 나는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한다)으로 전체 20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정서성과 활동성 및 사교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계수는 아동의 경우, 정서성 .710, 활동성 .753 그리고 사교성 .744였고, 청소년들의 경우는 각각 .704, .756, .744로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 애착척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Paterson, Pryor 및 Field(1995)가 사용한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 문항 중 어머니와 아버지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신뢰와 의사소통 및 소외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25문항씩을 포함하나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하위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각 요인별로 5개씩 추출하여 전체 15개 문항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의 합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문항들의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계수는 아동의 경우, 각각 .891과 .896이었고 청소년들은 각각 .882와 .880를 나타내었다.

### 형제자매관계 척도

장휘숙(2007)이 개발한 형제자매관계 척도가 사용되었다(부록 1참조). 이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전체 23개 문항을 포함한다. 온정과 갈등의 두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하는 이 척도는 13개의 온정 하위척도 문항(문항 예: 내가 잘못을 저질러 야단맞을 때 형제자매는 나를 위로해준다)과 10개의 갈등 하위척도 문항(문항 예: 나는 내 형제자매에게 질투를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은 형제자매가 손위인지 아니면 손아래인지 상관없이 특정한 한 형제나 자매를 떠올리며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온정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갈등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온정요인과 갈등요인에 대해 아동은 .922와 .808이었고, 청소년들은 .921과 .873이었다.

### 친구관계 척도

친구관계 척도는 선행연구(장휘숙, 2007; Carbery & Buhrmester, 1998; 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에서와 같이 형제자매관계 척도의 질문문항에 형제자매라는 단어 대신에 친구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사용되었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척도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근거는 두가지 관계가 모두 온정과 갈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척도는 13개의 온정 문항(문항 예: 나는 내 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과 10개의 갈등문항(문항 예: 나는 내 친구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을 포함한다. 질문은 가장 친한 동성친구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친구들과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고, 갈등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친구들과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아동의 경우 온정 하위척도 .893 그리고 갈등 하위척도 .819였고 청소년들에서는 각각 .895와 .806이었다.

## 결 과

### 1.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 사이의 관계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기질적 특성에서 성차나 연령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t$ 검증 결과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 $t(743)=3.407, p<.001$ )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였고, 모든 세가지 기질유형, 즉 정서성( $t(743)=6.343, p<.001$ ), 활동성( $t(743)=7.407, p<.001$ ) 그리고 사교성( $t(743)=5.738, p<.001$ )에서 연령차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자 아동과 여자 청소년들( $M=2.39, SD=.551$ )이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들( $M=2.25, SD=.560$ )보다 정서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청소년은 아동보다 정서성 점수(아동:  $M=2.19, SD=.539$ ; 청소년( $M=2.44, SD=.495$ ))는 유의하게 더 높고 활동성(아동:  $M=2.93, SD=.534$ ; 청소년:  $M=2.63, SD=.554$ )과 사교성(아동:  $M=3.10, SD=.498$ ; 청소년:  $M=2.90, SD=.453$ )점수는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아동과 중학교 남녀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 사이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은 남녀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갈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녀 아동들은 정서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많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특히 정서성이 높은 여아들은 온정적이지 못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남녀 아동의 활동성은 형제자매관계에서 온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친구관계에서는 남녀 아동 모두 활동성과 온정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활동적인 남녀 아동들은 갈등이 적고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며 친구관계도 더 온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사교성은 남자 아동의 경우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의 온정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을 나타내었으나 여자 아동의 경우에 사교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친구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사교적인 남자 아동은 갈등이 적고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사교적인 여자 아동은 갈등이 적은 형제자매관계와 더 온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록 남녀 아동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갈등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온정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활동성과 사교성은 두가지 관계의 온정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정서성은 낮고 활동성과 사교성이 높을수록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서성과 활동성 및 사교성은 아동의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우선 남자 청소년의 정서성은 형

표 1.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 사이의 상관

학년	변인	남				여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온정	갈등	온정	갈등	온정	갈등	온정	갈등	
아동	기질	정서성	-.118	.248	-.042	.269	-.161	.291	-.191	.280
				(**)	(**)	(*)	(**)	(*)	(**)	
		활동성	.171	-.156	.327	-.100	.179	-.185	.227	-.030
		(*)	(*)	(**)		(*)	(*)	(**)		
	사교성	.244	-.254	.384	-.155	.148	-.217	.355	-.134	
		(**)	(**)	(**)	(*)		(**)	(**)		
청소년	기질	정서성	-.175	.255	.012	.341	-.009	.231	-.073	.157
			(*)	(**)		(**)		(**)		(*)
		활동성	.131	-.087	.259	.066	.197	-.109	.108	-.030
				(**)		(**)				
	사교성	.191	-.155	.343	-.102	.168	-.071	.302	-.240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이하 동일함.

제자매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친구관계의 갈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여자 청소년들의 정서성 역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정서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들은 온정적이지 못하고 갈등이 많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관계에서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여자 청소년들 역시 정서성이 높을 때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서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에서 활동성은 친구관계의 온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여자 청소년들에서는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활동적인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더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적인 여자 청소년들은 형제자매들과 더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한편 사교성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친구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교성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친구관계의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적인 남자 청소년들은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며, 사교적인 여자 청소년들 역시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관계에서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 2.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 사이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성차나 연령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t(743)=3.472, p<.001$ )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t(743)=5.094, p<.001$ )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t(743)=7.182, p<.001$ )에서 유의한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아동과 여자 청소년들( $M=3.70, SD=.697$ )이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들( $M=3.52, SD=.699$ )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고, 아동들이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아동:  $M=3.75, SD=.689$ ; 청소년:  $M=3.49, SD=.694$ )와 아버지(아동:  $M=3.68, SD=.700$ ; 청소년:  $M=3.31, SD=.735$ )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연령을 구분하여,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애착과 친구관계 사이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2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녀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형제자매 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남녀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갈등요인과는 여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남녀 아동들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더 온정적이고 갈등수준은 낮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남녀 아동들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여아들은 갈등수준도 낮은 친구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친구관계의 갈등요인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녀 청소년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표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 사이의 상관

학년	변인	남				여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온정	갈등	온정	갈등	온정	갈등	온정	갈등	
아동	애착	어머니	.518 (**)	-.354 (**)	.204 (**)	-.214 (**)	.551 (**)	-.450 (**)	.350 (**)	-.256 (**)
		아버지	.533 (**)	-.300 (**)	.272 (**)	-.108 (**)	.425 (**)	-.421 (**)	.314 (**)	-.158 (*)
	애착	어머니	.357 (**)	-.321 (**)	.026 (*)	-.151 (**)	.399 (**)	-.318 (**)	.130 (**)	-.201 (**)
		아버지	.382 (**)	-.208 (**)	.114 (**)	-.050 (**)	.324 (**)	-.394 (**)	.194 (**)	-.138 (*)

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친구관계에서는 여자 청소년들만이 온정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남녀 청소년들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보다 더 온정적이고 갈등수준은 낮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관계에서도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남녀 청소년들도 더 온정적이고 갈등수준은 낮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였고 여자 청소년들은 더 온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남자 청소년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친구관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 3.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형제자매관계(온정과 갈등)와 친구관계(온정

과 갈등)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남녀 아동과 남녀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남녀 아동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남자 아동의 경우,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78, p<.01$ )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316, p<.001$ )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변량의 33.4%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58, p<.05$ )은 형제자매 관계의 갈등차원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전체 변량의 1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질적 특성 중 사교성( $\beta=.288, p<.01$ )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206, p<.05$ )은 친구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전체변량의 20.2%를 설명하였고,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 $\beta=.224, p<.01$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44, p<.05$ )은 친구관계의 갈등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변량의 10.8%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과 아버지에 대한 높은



표 3. 남자 아동의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형제 자매 관계	온정	정서성	.073	.111	.044	.652	.334	친구 관계	온정	정서성	.163	.102	.118	1.599	.202
		활동성	-.064	.150	-.035	-.426				활동성	.201	.138	.131	1.454	
		사교성	.255	.162	.134	1.576				사교성	.461	.149	.288	3.101**	
		어머니에 대한 애착	.384	.126	.278	3.040**				어머니에 대한 애착	-.018	.116	-.016	-.156	
		아버지에 대한 애착	.428	.123	.316	3.463***				아버지에 대한 애착	.234	.113	.206	2.064*	
	갈등	정서성	.177	.096	.138	1.843	.176	갈등	정서성	.272	.095	.224	2.869**	.108	
		활동성	.078	.130	.055	.602			활동성	.044	.128	.032	.340		
		사교성	-.254	.140	-.171	-1.810			사교성	-.114	.138	-.081	-.827		
		어머니에 대한 애착	-.278	.109	-.258	-2.536*			어머니에 대한 애착	-.249	.108	-.244	-2.307*		
		아버지에 대한 애착	-.057	.107	-.054	-.531			아버지에 대한 애착	.127	.105	.128	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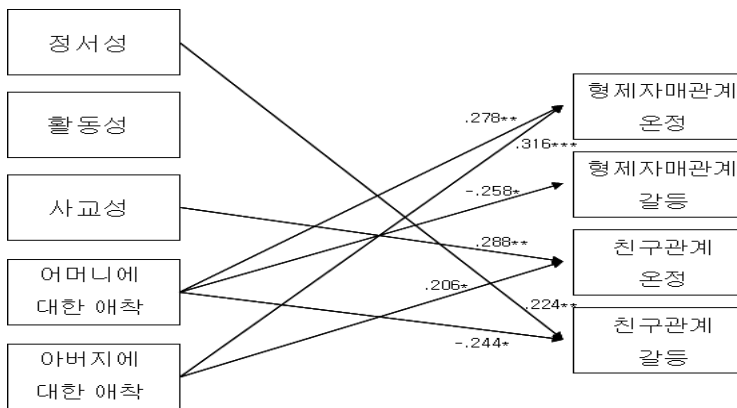


그림 1. 남자 아동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애착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는 여자 아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22, p<.01$ )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256, p<.001$ )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전체변량의 19.8%를 설명하였고, 기질특성

중 정서성( $\beta=.152, p<.05$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46, p<.01$ )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 변량의 1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질적 특성 중 사교성( $\beta=.314, p<.001$ )은 여자 아동의 친구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변량의 13.2%를 설명하였으며 세가지 기질적 특성 즉 정서성( $\beta=.327, p<.001$ )과 활동성( $\beta=-.232, p<.01$ ) 그리고 사교성

표 4. 여자 아동의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형제자매관계	온정		정서성	-.029	.117	-.017	-.247	.198			친구		정서성	.132	.098	.097	1.339		
			활동성	-.004	.127	-.003	-.034						활동성	.068	.106	.058	.641		
			사교성	.184	.165	.099	1.119						사교성	.475	.139	.314	3.430***		
			어머니에 대한 애착	.299	.100	.222	2.981**						어머니에 대한 애착	-.036	.084	-.033	-.424		
			아버지에 대한 애착	.298	.087	.256	3.438***						아버지에 대한 애착	.072	.073	.076	.982		
	갈등		정서성	.193	.092	.152	2.103*	.138			친구		정서성	.442	.097	.327	4.559***		
			활동성	.037	.100	.033	.371						활동성	.275	.105	-.232	2.619**		
			사교성	-.139	.130	-.098	-1.071						사교성	-.286	.137	-.189	-2.092*		
			어머니에 대한 애착	-.251	.079	-.246	-3.182**						어머니에 대한 애착	-.095	.083	-.087	-1.137		
			아버지에 대한 애착	-.035	.068	-.040	-.517						아버지에 대한 애착	.077	.072	.082	1.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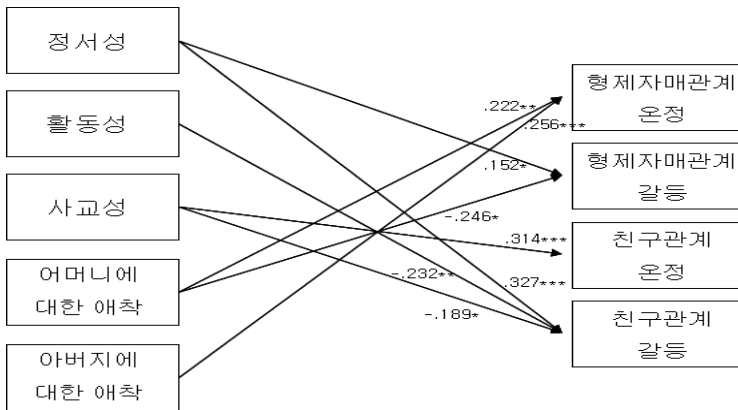


그림 2. 여자 아동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 $\beta = -.189, p < .05$ )은 친구관계의 갈등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전체변량의 1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낮은 수준의 활동성과 사교성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남자 청소년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 5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490, p < .001$ )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변량의 31.6%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269, p < .01$ )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 = -.206, p < .05$ )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전체변량의 2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사교성

표 5. 남자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형제자매관계	온정	정서성	.047	.125	.027	.380	.316	친구관계	온정	정서성	.012	.075	.012	.153	.192
		활동성	.040	.158	.021	.255				활동성	-.024	.096	-.022	-.252	
		사교성	-.140	.181	-.065	-.777				사교성	.323	.109	.269	2.954**	
		어머니에 대한 애착	.759	.137	.490	5.555***				어머니에 대한 애착	.172	.083	.199	2.076*	
		아버지에 대한 애착	.203	.131	.132	1.548				아버지에 대한 애착	.092	.079	.107	1.159	
	갈등	정서성	.169	.093	.137	1.812	.248	갈등	정서성	.246	.088	.229	2.806**		
		활동성	-.004	.118	-.003	-.037			활동성	.174	.111	.143	1.567		
		사교성	-.001	.135	.000	-.006			사교성	-.079	.127	-.059	-.622		
		어머니에 대한 애착	-.296	.102	-.269	-2.904**			어머니에 대한 애착	-.230	.096	-.240	-2.403**		
		아버지에 대한 애착	-.225	.098	-.206	-2.306*			아버지에 대한 애착	.049	.092	.052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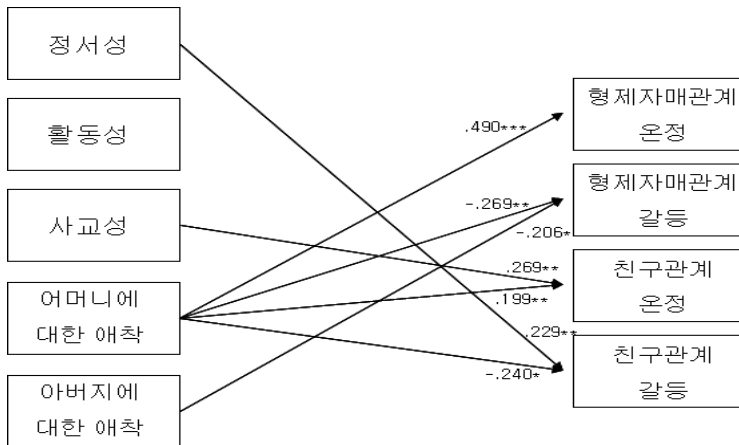


그림 3. 남자 청소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 $\beta=.269$ ,  $p<.01$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199$ ,  $p<.05$ )은 친구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변량의 19.2%를 설명하였으며, 정서성 ( $\beta=.229$ ,  $p<.01$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240$ ,  $p<.01$ )은 친구관계의 갈등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변량의 1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과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6은 여자 청소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자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표 6. 여자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td. Error	Beta	t	R <sup>2</sup>
형제자매관계	온정	정서성	.268	.142	.128	1.892	.212		온정	정서성	.047	.084	.040	.559	.119
		활동성	.273	.142	.150	1.925				활동성	-.108	.084	-.105	-1.275	
		사교성	.055	.170	.026	.322				사교성	.411	.101	.343	4.055***	
		어머니에 대한 애착	.431	.102	.325	4.224***				어머니에 대한 애착	.001	.061	.001	.011	
		아버지에 대한 애착	.203	.102	.155	1.981*				아버지에 대한 애착	.114	.061	.154	1.866	
	갈등	정서성	.208	.108	.132	1.935	.191		갈등	정서성	.105	.106	.071	.988	
		활동성	-.145	.108	-.107	-1.353				활동성	.196	.106	.153	1.848	
		사교성	.155	.129	.097	1.198				사교성	-.425	.127	-.286	-3.345***	
		어머니에 대한 애착	-.136	.077	-.137	-1.762				어머니에 대한 애착	-.134	.076	-.144	-1.758	
		아버지에 대한 애착	-.280	.078	-.285	-3.606***				아버지에 대한 애착	-.004	.077	-.004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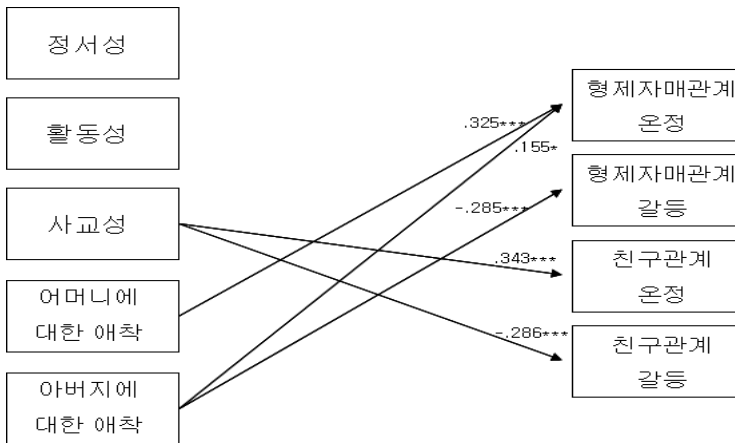


그림 4. 여자 청소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325,  $p < .001$ )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 = .155$ ,  $p < .05$ )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변량의 21.2%를 설명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 $\beta = -.285$ ,  $p < .001$ )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차원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변량의 1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질적 특성 중 사교성( $\beta = .343$ ,  $p < .001$ )은 여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온정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변량의 11.9%를

설명하며 사교성( $\beta = -.286$ ,  $p < .001$ ) 또한 친구관계의 갈등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전체변량의 1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같이, 여자 청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낮은 수준의 사교성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형제자매관계는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의 영향을 받고 친구관계는 주로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여자 아동과 여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온정차원이나 갈등차원은 모두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특히 사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의 온정차원과 갈등차원은 기질적 특성과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의 영향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높은 정서성과 함께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들이 부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3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기질과 친구관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친구관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기질과 애착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질척도와 애착척도, 형제자매관계 척도 및 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높은 정서성과 낮은 활동성 및 낮은 사교성은 전체적으로 갈등수준은 높고 온정수준은 낮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동들의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세가지 기질적 특성과 더 큰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

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을 형성한 남녀 아동과 남녀 청소년들은 더 온정적이고 갈등수준은 낮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친구관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남자 아동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 더 온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어머니에 대해 낮은 애착을 지닐 때 갈등적 친구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남자 청소년들도 어머니에 대해 낮은 애착을 형성했을 때 갈등적 친구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여자 아동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을 지닐 때 온정적 친구관계를 그리고 양자에 대해 낮은 애착을 지닐 때 갈등적 친구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을 지닐 때 온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이 낮을 때 갈등적 친구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기질과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남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과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여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낮은 수준의 활동성과 사교성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남자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

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과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되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은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고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갈등적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되며 높은 수준의 사교성은 온정적 친구관계와 그리고 낮은 수준의 사교성은 갈등적 친구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친구관계는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기질적 특성과 함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도 받지만, 여자 아동과 여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주로 기질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은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온정을 감소시며 활동성과 사교성은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서성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되고 사교성과 활동성은 두가지 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다는 Pike와 Atzaba-Poria(2003)의 연구와 일치할 뿐 아니라 정서성이 높고 지속성이 낮은 아동이 형제자매들에게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Brody와 Stoneman 및 Burke(1987)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서 높은 정서성은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각 기질적 특성과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의 관련성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보다 아동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발달된 자기통제력을 바탕으로 기질적 특성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 또한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 온정수준은 높고 갈등수준은 낮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Boer(1990)나 Brody와 Stoneman 및 McCoy(199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더욱이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양자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부모와 애정적 관계를 형성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는 다시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이월관계 모형을 지지하였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은 가족내에서 학습한 행동패턴을 기초로 관계형성을 위한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하고 그것을 친구관계에 일반화시킨다는 Bowlby(1973)의 주장은 물론 부모로부터 학습한 상호작용 양식이나 사회적 기술은 형제자매관계는 물론 가정 바깥의 친구관계에도 일반화된다는 사회학습이론가들(Lockwood, Kitzmann, & Cohen, 200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모두 애정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애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관계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기질적 특성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친구관계는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박혜원과 김은지(1997)의 연구에서도 기질은 형제자매관계보다 친구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실제로 형제자매관계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지만, 친구관계는 아동이 가정 바깥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이므로 부모의 영향보다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나 성격특성

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교적인 아동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황혜정, 2002; Bureleson, Della, & Applegate, 1992), 정서성이 높은 아동들은 친구로부터 배척을 받는다(McHale, Dariotis, & Kauh, 2003)는 선행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높은 정서성은 남자 아동이나 남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저해하고 낮은 사교성은 여자 아동이나 여자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들의 정서성을 완화시키고 여아들의 사교성을 높이는 것이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는 동성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이성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순위인지, 손아래인지에 따라 관계의 질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Stocker, Dunn & Plomin, 1989),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연령이나 성별구성에 따라 기질과 애착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전생애 동안 계속되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질과 애착의 영향력이 청년후기나 성인기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모두에 영향을 주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은 주로 형제자매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개인의 기질적 특성은 친구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성장하는 개인들이 바람직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혜원, 김은지(1997). 기질이 형제관계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4(1), 32-50.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장휘숙(2001). *아동발달*. 서울: 박영사.
- 장휘숙(2007). 형제자매의 구성과 친구관계, 애착 및 생활만족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53-70.
- 황혜정(2002).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35-49
- Boer, F.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Leiden, Germany: DSWO University of Leiden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2. New York: Basic Books.
- Brody, G. H., Stoneman, Z., & Burke, M. (1987). Child temperament,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54-362.
- Brody, G. H., Stoneman, Z., & McCoy, J. K. (1992). Associa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direct and differential behavior with sibling relationships: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3, 82-92.
- Burleson, B. R., Della, J. G., & Applegate, J. L. (1992). Effects of matern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cogni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ildren's acceptance by the peer group. *Family Relations*, 41,

- 264-272.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rbery, J., & Buhrmester, D. (1998). Friendship and need fulfillment during three phase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3), 393-409.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15-324.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63-172.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90). The structure of temperamental fear and pleasure in infants: A psychometric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1*, 1944-1964.
- Gunnar, M. R., & Nelson, C. A. (1994). Event-related potentials in one year-old infants: Relations with emotionality and cortisol. *Child Development, 65*, 80-94.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ramer, L., & Gottman, J. (1992). Becoming a sibli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85-699.
- Lookwood, R. L., Kitzmann, K. M., & Cohen, R. (2001). The impact of sibling warmth and conflict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Child Study Journal, 31*, 47-69.
- McCoy, J. K., Brody, G. H., & Stoneman, Z.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sibling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family processes and youths' best friendships. *Family Relations, 43*, 400-408.
- McHale, S. M., Dariotis, J. K., & Kauh, T. J. (2003).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 R. Learner, M. A. Easterbrook, & J. Mistry (Eds.), *Handbook of psychology: 6 Developmental psychology*. 267-291. New York: Wiley.
- Parke, R. D., & Buriel, R.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463-552).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65-376.
- Pike, A., & Atzaba-Poria, N. (2003). Do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share the same temperamental origins? A twi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4), 598-611.
- Prior, M. (1992). Childhood temperament. *Journal*



-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249-279.
- Rubin, K. H., Bukowski, W. H.,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619-700).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chneider, B. H., Atkinson, L., & Tardif, C. (2001). Child-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A quantit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6-100.
- Sherman, A. M., Lansford, J. E., &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s and best friendships in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 151-165.
- Stocker, C. M.,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Stocker, C. M., Dunn, J., & Plomin, R. (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Updegraff, K. A. & Obeidallah, D. A. (1999). Young adolescents' patterns of involvement with siblings and friends. *Social Development*, 8, 53-69.
- Updegraff, K. A., McHale, S. M., & Crouter, A. C. (2002). Adolescents' sibling relationship and friendship experiences: Developmental patterns and relationship linkages. *Social Development* 11(2), 182-204.
- Volling, B. L., Youngblade, L. M., & Belsky, J. (1997). Young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with siblings and frie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102-111.

1차 원고 접수: 2008. 1. 2

수정 원고 접수: 2008. 2. 3

최종게재결정: 2008. 2. 4

#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Attachment on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attachment to parent on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middle school adolescents. Analyses revealed that warmth aspects of both the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were related to emotionality, while the conflicts aspects of these relationships were associated with sociability and activity. Also high attachment to parent were associated with warmth aspects and low attachment to parent were related with conflicts aspects of the both relationships. Interestingly temperament had greater effects on friend relationship than sibling one and attachment had greater effects on sibling relationship than friend one.

*Key words: temperament, attachment, sibling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부록 1. 형제자매관계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플 때 형제자매는 내 곁에 있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잘못을 저질러 야단맞을 때 형제자매는 나를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형제자매는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형제자매 때문에 자주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형제자매에게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상을 타거나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형제자매는 나를 축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형제자매를 믿고 의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형제자매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형제자매에게 질투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형제자매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형제자매보다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형제자매를 보호하고 보살핀다.	①	②	③	④	⑤
14	형제자매와 함께 있으면 나는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형제자매에게 고함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형제자매가 약속을 어기면 나는 욕설을 하거나 거친 행동(때리기 같은)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형제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형제자매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면 형제자매를 몰아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형제자매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형제자매에게 지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